밀교 수행법 알기쉽게 정리

'금강계 만다라' 영우 스님 지음



사람에게는 신구의(身口意)로 지은 세 가지 종류의 업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신구의의 청정한 삼밀(三密)이 있다. 삼밀이란 수인(手印), 다라니(多羅尼), 삼매(三昧). 이 세 가지 비밀한 이치와 보리심을 화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밀교이다. 이러한 밀교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법(理法)의 태장계만다라와 지법(智法)인 금강계 만다라 수행법이다. 〈대비로차나성불신변가지경〉 계통의 경전들이 이법을 대표하는 경전이라면, 〈금강유정경〉 계통은 지법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이 가운데 〈금강유정경〉 계통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경전이 〈오부심관〉이다.

신간 〈금강계 만다라〉(영우스님 지음, 하남)는 밀교의 핵심을 이루는 금강계만다라 '진실섭경'과 '오부심관'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밀교 최고의 경전인 〈진실섭경〉을 중심으로 하고, 삼매도와 수인 그리고 진언은 〈오부심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책은 먼저 금강계만다라 37부처님을 설명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비로자나 · 아축 · 보생 · 무량수 · 불공성취의 다섯 부처님을 오부로 하여, 만다라의 기초가 되는 법과 입단관정의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만다라 세계를 체득하기 위한 4종인의 실천법을 설명한다. 값 2만9천5백원.

김중근 기자

김정빈 '만화로 보는 불교…' 5권 완성

불교상식 · 인물 · 교리 담아



불교의 진리를 만화로 살필 수 있는 '만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시리즈 5권이 완간됐다. 구도소설 〈단〉과 〈도〉를 내놓았던 김정빈 씨가 글을 썼고, 최병용 씨가 그림을 그렸다.

1권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절과 사물, 석등과 연등, 탑, 전과 각 그리고 불상의 수인과 자세 등에 대해 설명한다. 2권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탄생, 출가와 고행, 깨달음, 설법과 교화,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생애를, 3권 〈인물불교사〉는 부처님 당시와 열반하신 후 불교의 전통을 이끌어온 고승들을 보여준다. 4권 〈불교의 근본교리〉에서는 불교의 중심사상을 불교우화와 고사를 들어 설명하고, 5권 〈장엄한 불교경전〉에서는 불교의 중요 경전을 통해 불교의 진리의 세계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청소년 포교 이렇게…

조계종 '포교 방법론 2' 펴내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및 교육지침서 사업 일환으로 펴내고 있는 '포교방법론' 시리즈 두 번째 권 〈포교방법론 2〉(조계종 출판사)가 나왔다.

〈포교방법론 1〉이 포교의 의미와 방법을 경전에 근거 서술한 반면, 이 책은 계층 포교의 이론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포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안과 활용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어린이 포교의 경우, 역사와 법회의 운영과 실제에서부터 사이버 법회, 역사탐방, 사경 · 사불, 야외 법회 등의 프로그램과 어린이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까지 담고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탄생 100주년 김동화 전집 14권 출간

'뇌허 불교학' 집대성



◇뇌허 김동화박사.

한국불교학 기초다진 명저
선사상 등 논문·잡문 총망라
16일 동국대서 출판기념회

가야할 길이 불투명할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길 찾기의 한 방법이다. 뇌허 김동화 박사의 전집을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갖가지 사회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학계의 경우, 석학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바로 그런 스승의 전형이랄 수 있는 불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뇌허(雷虛) 김동화(1902~1980) 박사가 아닐까. 그는 한국불교학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지난 50~60년대 활발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다. 현재까지 정리된 논저만 해도 단행본 23권, 논문 38편에 이른다.

뇌허 김동화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뇌허 김동화 전집〉은 뇌허불교학술원(원장 관응 스님 · 직지사 조실)이 4년여 간의 자료조사 끝에 완성한 '뇌허 불교학'의 결정판이다. 모두 14권으로 묶인 전집은 뇌허의 불교학 저서와 논문, 논설, 잡문 등을 망라했다. 전집 간행위원으로는 관응 · 호진 · 광우 스님, 이재창 · 김영태 · 서윤길 · 이봉춘 교수 등이 참여했고, 실무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맡았다.

1권부터 12권까지는 불교학개론에서부터 원시불교사상, 선사상, 구사, 유식 등 불교학 전반에 걸쳐 내놓은 명저들이다. 근대의 우리나라 첫 불교학 개론서로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필독서였던 〈불교학개론〉(보련각, 1954년), 원시불교가 모든 불교학 연구의 기초임을 인식해 내놓은 원시불교 교리 연구서 〈원시불교사상〉(보련각, 1973년),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불교관에 입각하여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구사학〉(문호사, 1971년), 원시불교교리론, 부파불교의 교리, 소 · 대승불교의 교리사상 네 편으로 나눠 인도불교 전반의 교리발달 전개의 역사를 밝힌 〈불교교리발달사〉 등 대부분이 불교학 관련분야의 첫 학문적 성과이자 간행물들이다.

이밖에 김동화 박사가 쓴 논문과 논설 그리고 수필 및 잡문들은 13권과 14권 속에 들어 있다.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학문의 황량한 벌판에서 일궈낸 선생의 저서들은 불교학 연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보전"이라며 "그런 훌륭한 글을 다시 한묶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복이다"고 말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늘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되물어야 가치가 새로운 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전집을 반기며 김동화 박사의 '현재성'을 주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뇌허불교학술원은 16일 오후 4시30분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출판기념회 및 봉정식을 연다. 값 전권 35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있는 그대로 보면' 번뇌 소멸

'마음은 이렇게 움직인다' 홍종욱 옮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설하였다. 결국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얘기다.

〈마음은 이렇게 움직인다〉(홍종욱 옮김, 경서원)는 근본불교 교리에 바탕을 둔 논장 입문서로, 마음의 여러 유형과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심조'의 참 뜻을 일러주는 지침서인 셈이다.

지은이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태국에서 논장을 연구하고 있는 니나 판 고오콤 씨. 그는 마음의 실재를 크게 정신 현상인 명(名)과 물질 현상인 색(色)으로 나눈다. 사물의 모습인 이 명색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망집에 사로잡히게 된다. 예를 들어 '들음'은 명이다. 그것은 형체도 모양도 없다. 들음은 귀와 다르다. 하지만 들음은 필요조건으로 귀를 가진다. 듣는 명은 소리를 경험한다. 그런데 귀와 소리는 색이다. 듣는 명과는 전혀 별개인 셈이다. 들음, 귀, 소리가 서로 다른 사물의 모습임을 알지 못하면 '들음'을 '자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보는 것, 보이는 것, 느낌이나 생각으로 나타나는 명색의 실체를 바로 알 때 미망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은이는 논장이 설명하는 모든 실재(다섯 가지 감관과 마음의 여섯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곧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불교문화사(교양교재편찬위원회 지음, 동국대출판부)=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의 인도에서부터 중국불교와 최근의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사상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불교교양서. 불교이전의 인도문화와 불멸후 불교의 전개 등을 담은 '인도의 불교 문화'를 비롯해 '중국의 불교문화' '한국의 불교문화' 3편으로 구성됐다. 값 9천원.



▲화두와 참선(운주사 편역)=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와 좌선법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는 〈좌선의〉를 편역했다. 참선의 선결요건, 참선 수행의 입문방법, 참선방법 등 초심자들이 손쉽게 참선의 의미와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값 3천5백원.



▲가슴에 폭탄을 품은 여자들(김숙현 지음, 금산)= 극작가와 논객 두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김숙현(부산일보 논설위원) 씨의 칼럼 에세이집. 참다운 여성관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소망과 희원을 담은 '여성다움의 신화'를 비롯해 여섯 장으로 나눠 모두 120여 편의 칼럼과 수필이 실려 있다. 지난 68년 현대문학을 통해 희곡작가로 등단, 김씨가 칼럼집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값 9천원.



▲불국토의 새벽을 여는 사람(한정섭 편저, 우리)= 경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스님의 수행과 포교담을 담은 책.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이력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승가대학의 기본 경전인 〈초발심자경문〉, 〈치문〉, 〈사집〉, 〈사교〉 등을 비롯해 큰 스님들의 법문까지 실려 있다. 값 1만원.



▲경전 길라잡이(김대원심 엮음, 동국역경원)= 불자로써 알아야 할 요긴한 항목만을 골라 엮은 경전이해의 길라잡이. 보살에 대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인욕, 사섭법, 사무량심, 허공, 대승, 사제 등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를 〈대방등대집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었다. 값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2	영가현도	일 타	효 림
3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5	꽃담	해 만	시 공 사
6	무상심요법문	박 건 주	운 주 사
7	초기불교개적사	김 재 영	도피안사
8	붓다는 없다	스티븐 배첼러	이른과 실천
9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10	한국의 전통조경	홍광표 이상운	동국대출판부

도서 안내:(02)737-0695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놓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설산스님의 맑은 영혼과 사랑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순수한 알몸이 되어 간다

알몸이야기

설산 스님 시집

마음의 평온이 어디서 오는가?
뭇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설산스님의 '알몸철학'을 만나십시오!!



신국판변형/
170쪽/6,000원

알몸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진 무구 순수 어린이의 마음

그 세계는
아무 걸림없는 무애의 세계
자비를 탄생시키는
절대 초발심의 그릇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곧
자신을 편케 하는 것이다
알몸으로 세상을 연다
-본문 중에서-

이무것도 걸치지 않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운 아이처럼 알몸이 되리라

3 백만문화사 대표전화(02)325-5176 팩스(02)323-76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22-2